제주특별자치도	보도자료	2025. 11. 10.(월) 즉시 보도 가능		
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		조직위원장	고문삼	☎ 760-3091
		사무국장	허상보	☎ 760-3091

감귤박람회 오는 20일 개최…세계로! 미래로!

-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 -

- 다채로운 전시·학술·체험·문화·경연이 어우러지는 감귤 축제의 장 -

□ **제주특별자치도와 (사)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(위원장 고문삼)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'2025 제주감귤박람회'를 개최한다.**

○ '국민과 함께하는 사랑받는 제주 감귤! 세계로! 미래로!'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감귤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감귤 전문 박람회로, 약 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**박람회는 20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.**

○ 개막에 앞서 감귤농가 300명이 참여하는 **개막식 퍼레이드**가 열려, 감귤산업의 주역인 농민들이 직접 박람회의 문을 연다.

○ 개막식에서는 숨비소리 합창단과 다온무용팀의 축하공연과 함께 일본과 중국 감귤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'아시아 시트러스 국제학술회의 준비위원회'가 공식 출범한다.

□ **개막 이후 5일간 전시·학술·체험·문화·경연이 어우러지는 감귤산업의 종합 축제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.**

□ **이번 박람회는 ▲대한민국 감귤관 ▲감귤홍보관 ▲감귤직거래장 ▲감귤산업관 ▲우수감귤 전시관 ▲농기·자재 전시관 ▲유관기관 홍보관 7개 전시관, 160개 부스로 운영된다.**

○ **대한민국 감귤관**은 재래품종부터 신품종, 품평회 수상작까지 340점의 감귤이 전시돼, 감귤의 역사와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.

○ **감귤 직거래관**에서는 최고 품질의 감귤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가능하며, 감귤 찜하기・구워먹기・블라인드 테스트・떡메치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상시 운영된다.

□ **오감으로 즐기는 체험과 경연 프로그램,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됐다.**

○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발표대회인 **제주 황감제**를 비롯해 **귤빛 가요제**, **감귤 디저트 경연대회**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.

○ 감귤풀(Pool) 속 황금코인을 찾는 **넘버원 감귤왓**은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와 이탈리아의 오렌지 전투 축제를 제주형으로 재해석한 이색 체험 프로그램이다.

○ **농업인의 날 기념식**, **제주 4-H대상 시상식** 및 **한마음 대회**도 열려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한다.

○ 이 외에도 △라이브커머스 △감귤 다이닝 △멍때리기 대회 △감귤농업 보드게임 △버스킹 공연 △감귤 경매 △미로원 보물찾기 등 다양한 문화・체험 행사가 연일 이어진다.

□ **감귤농가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학술행사도 강화했다.**

○ **국제심포지엄**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인공지능(AI) 기술을 주제로 한 아시아 시트러스 명사 초청 강연과 국내 연구진의 성과 발표가 진행된다. 이어 유통 대응방안 토론회, 전문가 특강, 바이어 상담회를 통한 농가의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.

□ 또한 ▲관람객 교통 편의를 위한 2개 노선 셔틀버스 운행 ▲도외 방문객을 위한 숙박 할인 ▲지역 상생을 위한 인근 관광농원(휴애리, 돌낭예술원, 상효원) 입장권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.

□ 고문삼 조직위원장은 “감귤농민과 산업 관계자, 방문객 모두 주인공이 되는 박람회를 목표로 준비했다”며 “감귤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동시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”고 말했다.

○ 2025 제주감귤박람회 세부일정과 프로그램별 사전 신청은 누리집(www.jicexpo.com)에서 확인 할 수 있다.